

2018년 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건축을 위해  
그리스도의 풍성들을 누리

메시지 13

단체적인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의 풍성들을 체험하고 누리고 선포하고 공급함

성경: 고전 12:12, 엡 3:8, 4:12, 고후 3:6, 8-9, 4:1-2, 10-12

- I. “왜냐하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가 한 몸인 것같이, 그리스도도 그와 같으시기 때문입니다.” — 고전 12:12.
- A. 여기서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그 그리스도'이며, 머리이신 그리스도 자신과 그분의 몸인 교회, 즉 지체들인 모든 믿는 이로 구성된 단체적인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 고전 12:27, 엡 1:22-23, 4:15-16.
- B. 그리스도의 모든 믿는 이가 그분과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그분의 생명과 요소로 조성되어, 그분을 표현하는 유기체인 그분의 몸이 되었다. 그러므로 그분은 머리이실 뿐 아니라 몸이시다 — 롬 12:4-5, 고전 6:17, 골 1:18, 27, 3:4, 10-11.
- C. 우리의 물질적인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한 몸인 것같이 이러한 그리스도도 그와 같으시다 — 고전 12:12.
- D. 단체적인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 자신을 포함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 그리스도의 지체들, 그리스도의 부분들인 모든 믿는 이도 포함한다 — 고전 12:14-27.
1. 우리의 타고난 조성에 따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될 수 없다.
  2.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를 그분의 일부로 만드시는 조성성분이시다 — 골 3:10-11.
  3.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인 그분의 일부분이 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존재 안으로 일해 넣어지신 그리스도를 가져야 한다 — 갈 4:19, 엡 3:16-17.
  4. 내재적으로 교회는 전적으로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 이유는 그분이 교회의 조성성분, 곧 조성이시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단지 교회의 외적인 형태일 뿐이다.
  5. 교회의 내재적인 내용으로서 그리스도는 머리이시며 또한 몸이시고 심지어 몸의 모든 지체이시며 모든 지체 안에 계신다 — 갈 4:19, 골 1:18, 2:19, 3:4, 10-11.
- E. 그리스도의 몸의 내재적인 조성성분이신 그리스도는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시며 측량할 수 없는 풍성들을 가지고 계신다 — 골 2:9, 엡 3:8.
1. 골로새서 2장 9절에 있는 총만은 하나님의 풍성들의 표현을 가리킨다.
  2.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들은 사실상 신격의 총만이다.
    - a. 신격에는 총만이 있다. 그리스도께는 총만이 측량할 수 없는 풍성들이 된다 — 골 2:9, 엡 3:8.
    - b. 신격의 총만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들이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의 체험과 누림을 위해 우리 안으로 분배되기 위한 것이다.
- F.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체현으로서 그리스도는 측량할 수 없는 풍성들을 가지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이시다 — 엡 3:8.

1. 그리스도의 풍성들은 우리를 위한 그분의 어퍼하심이다. 그리스도는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긍정적인 것들의 실재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풍성들에는 헤아릴 수 없는 방면들이 있다 — 골 2:16-17.
  2. 그리스도의 풍성들은 인간 미덕들과 신성한 속성들을 모두 포함한다.
- G. 우리는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들을 알고 체험하고 누리야 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표현인 교회의 산출을 위한 것이다 — 엡 3:8, 10.
1. 이것은 믿는 이들 안으로의 그리스도의 분배를 통해 발생한다.
  2. 교회는 가르침이나 조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분배를 통해 산출된다.
  3.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더 분배될 때 교회는 더 높아진다.
  4. 그리스도의 풍성들을 흡수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인 그분의 몸이 되어 그분을 표현한다 — 엡 3:8, 1:22-23.
  5.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고 동화시킨 그리스도의 풍성들로 조성된다 — 갈 4:19, 엡 3:16-21, 4:16.

## II. 단체적인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들을 복음으로 전해야 한다 — 엡 3:8.

- A.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충만과 그리스도의 표현과 넘쳐흐름인 교회를 산출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들을 누렸고 복음으로 전했다 — 엡 3:8-11, 1:22-23.
- B. 복음인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들은 복음으로서 신약의 스물 일곱 권 전체에서 계시된다. 이 놀랍고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는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체현, 곧 완결되시어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서 우리에게 도달하심으로써 우리가 계속해서 그분을 은혜 위에 은혜로 받게 하고 날마다 새로워져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위하여 영의 새로움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한다 — 요 1:14, 16, 고전 15:45 하, 고후 4:16, 롬 1:9, 7:6.
1. 복음서에서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사셨고 구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2. 사도행전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확산되시고 사람들에게 공급되셨다.
  3. 로마서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롭게 됨을 위한 우리의 의이시며, 거룩하게 됨과 변화와 같은 형상이 됨과 영광스럽게 됨과 건축을 위한 우리의 생명이다.
  4.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율법과 종교와 전통과 형식들을 거스르는 생활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5.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는 그분의 지체들이 살아 나타내는 분이시다.
  6.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는 몸, 즉 교회의 생명과 내용과 머리이다.
  7. 고린도전후서에서 그리스도는 실지적인 교회 생활 안에서 모든 것이다.
  8. 데살로니가전후서에서 그리스도는 다시 오시기 위한 우리의 거룩함이다.
  9. 디모데전후서와 디도서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경륜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 안에서 어떻게 처신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하신다.
  10. 히브리서에서 현재의 그리스도로서 지금 하늘들에 계시는 우리의 사역자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생명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며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생명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축해 주는 분이시다.
  11. 베드로의 서신들에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고난들을 통해 수행되는 하나님의 행정적인 다루심을 취할 수 있도록 하신다.
  12. 요한의 서신들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과 교통이다.
  13. 요한계시록에서 그리스도는 이 시대에서 교회들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시며 오신 시대의 왕국 안에서 세상을 다스리시며 영원토록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충만한 영광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하시는 분이시다.

14. 그러한 놀랍고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모든 것에 미치며 우주적으로 풍성하신 그리스도는 지금의 그리스도, 오늘의 그리스도,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매일의 구원과 순간순간의 공급인 분이시다 — 히 8:2, 4:14-16, 7:26, 롬 5:10.

### III. 단체적인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는 진정한 사역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풍성들을 공급해야 한다 — 고후 3:6, 8-9, 4:1, 10-12, 엡 4:12.

- A. 고린도전서에서는 은사들이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졌지만 고린도후서에서는 은사들이 사역으로 대체되었다 — 고후 4:1.
  1. 사역은 우리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이다(고후 1:3-4). 교회는 은사들보다 훨씬 더 사역이 필요하다.
  2. 사역은 고난과 소모시키는 압력과 십자가의 죽이는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풍성들을 체험함으로 조성되고 산출되며 형성된다 — 고후 1:3-8, 4:8-12.
  3. 고린도후서는 우리에게 십자가가 죽이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존재 안으로 일해 넣어지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표현이 되는지에 대한 본과 예시를 제공한다. 이러한 과정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을 조성하며 하나님의 새 언약을 위한 사역을 산출한다.
  4. 사역은 십자가의 일을 통해 나온다. 십자가의 길에 의해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공급할 그리스도의 풍성들을 갖는다 — 고후 4:12.
  5. 사역은 고난을 체험함을 통해 은혜로 조성되는 것에 속한 문제이다 — 고후 4:12, 12:9, 고전 15:10, 딤후 1:14, 딤후 1:9, 2:1.
- B. 사역은 계시에 고난이 더해짐으로 산출된다 — 고후 12:1, 7, 1:3-5, 8-10.
  1. 바울의 서신서에서 우리는 세 가지, 곧 계시와 고난과 사역을 본다 — 엡 3:5, 롬 16:25, 빌 3:10, 골 1:24, 고후 4:1.
  2. 우리가 받은 계시는 고난을 통해 우리의 존재 안으로 새겨진다.
  3. 우리가 얼마만큼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풍성의 실재를 공급할 수 있는가는 두 가지 요소들, 곧 우리가 얼마만큼의 계시를 받았는가와 우리에게 계시된 것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고난을 받았는가에 달려 있다.
- C. 사역은 우리의 어떠한 표현이다 — 고후 4:1, 5, 2:17, 4:10-12.
  1. 바울이 사역한 것은 바울 자신이었다. 그 이유는 그가 본 것이 그의 존재 안으로 일해 넣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어떠한을 사역했다 — 고전 15:10.
  2. 바울이 가진 것은 사역이었고 그 사역은 그의 어떠한이었다 — 고후 4:1-2.